



통권 44호

광주 14면우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5. 6. 8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쇠사슬에 묶인 한국통신 노동조합”

▲ 이것이 문민인가!

6월 6일, 경찰은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단식농성 중이던 한국통신 노조간부 13명을 연행하였다. 특히 97년 명동성당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이 난입한 사태에 대해 천주교 쪽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폭거”라며 강경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조계종도 「범불교도 대책위」를 마련 교권유린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위 사진은 명동성당과 조계종에서 연행된 노조간부들이 쇠사슬로 엮인 수갑을 찬 채 서울경찰청 청사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공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농성중이던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이 농성 16일, 그리고 단식농성 11일만에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연행 당했다. 관할 경찰서장이 다섯번씩 영장집행 협조를 요구했었고 5일엔 서울 경찰청장이 같은 요구를 한 뒤 노조측과 성당, 조계사 3자의 중재안 노력마저 무시해 버리고 이른바 '강경대처' 해 버리고 말았다.

'새해들어 임금교섭 등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동쟁의가 여러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특히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같은 대기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와 국가권력의 일방적 탄압으로 노조간부들을 강제연행-구속시키

는 사태를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 투입이 노조실체를 철저히 외면한채 '통신대란'이니 '국가전복 저의' 따위로 매도하여 지방자치체 선거를 앞둔 때 자행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2일,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수(회사의 일방적인 작업강도에 항의하다 해고 당함)씨는 끝내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해 자신을 불살랐다. 이러한 분신과 관련, 노동자들은 임업거부로 회사측은 휴업결정으로 맞서는 상태에서 당국은 경찰력 투입과 노동자 강제연행-구속이라는 노동자 탄압으로 이어왔다. 또한 52,000명이 가입한 자주적 노동조합이며 직접선거로 정당하게 구성된 노조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은채 단체교섭에 무성의로 일관하던

한국통신공사 경영진이 갑자기 노조간부 64명을 경찰에 고소 고발하고 끝내는 공권력이 노조간부집을 급습, 강제연행-구속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온것도 사실이다.

6월 1일 민가협 목요집회에 나온 한국통신노조 농성가족들은 '인권유린과 정부의 고의적 노조탄압'을 알리면서 공사측에 단체교섭에 응하고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같은 날 35개 민족민주 운동단체와 노동관계 인사, 개인들 86명은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노동3권 보장하고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6월 3일엔 노동자, 시민 학생 등 15,000명이 장충단공원에 모여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보장 촉구 국민대회'를 갖고 종로까지 거리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연행된 노조간부들은 농성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국가전복 저의' 발언 해명사과, 징계통지서 전달과정의 반인륜적인 행위 사과,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조치와 사법처리 기도 철회,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 해결, 각 전화국에 배치된 전투경찰 철수하고 공안정국 조성기도 중단, 수배해제와 구속자 석방.

과연 노동자들이 범법자이고 국가전복음모를 갖고 있으며 통신대란을 기도하고 있었던가, 그들의 요구는 부당했던가, 짚고 넘어가 보자.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 수단을 자신의 노동력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노동력도 노동할 때만 값이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력 상실이나 감퇴는 바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위협이며 또한 노동은 자신의 노동력 재 생산에 맞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양봉수 씨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생산라인 노동(작업) 강도를 높인 힘의 한 것은 바로 생존 그 자체의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마땅히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조건을 협의했어야

신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통신을 100으로 할 때 데이콤 142, 이동통신 155, 신세기통신 142, P.C통신 142) 노조측에선 6년간 임금억제정책(가이드라인)으로 최저생계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는 그 자신의 노동력 보존과 가족의 생계 및 교육(재생산비) 그리고 인간다운 삶(문화적)을 형유할 최저생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노조가 주장하는 통신개방과 민영화에 대한 정책비판을 불법행동으로 몰아세우는

정부의 태도 또한 옳지 않다. 아직도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통신개방으로 나라의 통신주권이 위협당하는 것을 우려하고 국민생

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통신공기업이 소수 재벌손에 넘어가는 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은 오히려 애국충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노동쟁의과정에서 툭하면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자만을 일방적으로 연행, 구속, 수배하는 노동탄압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와 정권이 볼 때 노동자는 한갓 생산요소로 가벼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는 노동력을 지닌 인격체이고 사고하고 감각하는 인간이다. 노동3권 보장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이고 권리이다.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노동3권 보장과 쟁의 당사자 자율교섭 원칙을! 그리고 노동악법 철폐하고 연행되고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주장한다.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할 일이다.

또한 노·자(노·사)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율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사측이 지금 노조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으면 쟁의조정법에 따라 (공공기업의 예외적인 조항은 헌법정신과 노동조건의 국제규약에 위배된다.) 조정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그런데 단체교섭 그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고소고발로 맞서는 행위는 군사정권하에서의 노동탄압 짜꺼기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또한 노조측에서 말하는 임금인상요구안과 임금억제 가이드라인 철폐가 과연 무리한 요구였던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한국통



우리 뜻으로 남는 '진실' 이라는 희망

편집부

5월 31일, 한겨레신문 1면에는 꽃게잡이 어선 우성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피랍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 중 북방한계선이니, 영해 침범이니 하는 말이 새삼스럽게 우리가 분단국가의 국민임을 자각하게 한다.

그동안 납북되었던 어부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사람이 16명에 이르고, 그들 대부분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아직도 4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나는 진심으로 피랍 어부들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포된 선원들의 가족은 지금 얼마나 마음을 즐이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돌아와 예전처럼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반공연맹이 주관하는 합동기자회견에서 두손을 번쩍 들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착잡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나기 얼마전에, 나는 억울한 옥살이를 13년째 하고 있는 정영 씨의 따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마음이 더욱 무거운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여전히 대구교도소 3236번

"올 1월에 아버지 사건의 공판, 수사기록을 열람하려고 인천지검에 갔었어요. 처음에는 소명서를 써와라, 뭘 해와라 까다롭게 굴더니 담당검사가 억지를 부려서 결국에는 보지 못하고 왔어요. 본인이 아니면 보여 줄 수 없고 다시 심리할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요. 한번 내린 결정은 변복할 수 없다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가 그냥 있지만 기필코 그 서류들을 열람하고 말겠다'고 뭇을 박고 왔어요."

상숙씨(28세, 정영 씨의 2남2녀 중 둘째 딸)는 아버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기로 했단다. 단계적으로 재심도 준비할 거고,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2년 전에 만나 보았을 때보다 더 아무지고 옹골찬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2년전이나 지금이나 상숙씨의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때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사건을 알리고자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대구교도소에 계시고 가족들은 생이별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상숙씨의 아버지 정영(55세)씨는 1983년 9월 어느날 아침 출근 길에 영문도 모른 채 인천시 도암동 안기부로 끌려갔다. 40여일이 지난 후 그는 국가보안법상 고정간첩, 간첩방조죄를 시인하고야 말았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 온 몸을 초죽음이 되도록 짓밟는 고문을 당하면서 수사관들이 시키는대로 간첩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재당숙인 정진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6. 25때 월북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당시 9살로 그분 얼굴도 뵙 적이 없대요. 같은 동네에 살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납북되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지령을 받고 간첩이 되었다니, 말도 되지 않아요."

40일 고문속에 만들어진 '간첩'

이야기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비법리 주민들 100여명은 비부장지대인 은점펄로 조개잡이를 하러 간다. 심한 가뭄이 들자 조개라도 캐어 생계를 꾸리려던 그들은 안개가 몹시 낀 날 모두 북한 경비선에 의해 납북되었다.

주민들은 평양에 가서 20일동안 가족사항 등의 조사를 받고 개성을 거쳐 판문점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수사기관에서는 북한에서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아무 혐의가 없자 모두 풀어 주었다. 그리고 18년이 지나 그것도 옛 이야기가 되어갈 즈음, 납북되었던 사람들 중의 한명인 정영씨는 안기부의 밀실에서 간첩으로 둔갑했다. 마을 사람중 누군가가 납북 당시 정진구(정영의 재당숙)를 본 것 같다는 확실하지 않은 말을 했고, 그것을 빌미로 또 하나의 조작 간첩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린시절 부모를 잃어 배움이 많지 않은 그는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1981년 5월 고향을 떠났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논밭(논 2500평, 밭 900평)과 가축을 팔아 12평짜리 허름한 집을 인천에 마련하고, 부부가 모두 취직을 하여 알뜰살뜰 살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안기부 수사관들은 인천으로 이사한 것을 간첩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이며, 집을 산 돈도 공작금이라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정영씨가 고향 마을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것도 간첩임을 위장하기 위한 술수라고 우기는 그들 앞에서, 예비군 소대장을 지내며 군수와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공로 표창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침대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려

엉덩이가 터지고,
의자에 묶어 놓
은 채 곤봉으
로 무차별 구
타를 했다.
나중에는 귀
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온 몸을 짓밟
았으며, 그래
도 그가 혐의를
부인하자 아내마저
끌어다가 고문하
였다.

버티면 버틸

수록 고문은 모

질어져 갔고 마침내 그는 수사관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첩이라면 으레 알아야 할 무전교육이며 접선 방식도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고 아무런 물증이 없자, 그들은 강화도의 풍속까지 왜곡, 조작했다.

강화도에서는 추수가 끝나면 '별상마님' (짚으로 만든 인형,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섬 지방의 풍속)이라 하여 상에 정한수와 쌀을 놓고 절을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그것을 두고 김일성 수령에게 감사하다며 절했다고 하는 판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쌀을 팔아 생긴 돈 100원을 종이에 싸 '별상마님'이 있는 선반에 두었다가 마을 사람들의 의식대로 복숭아나무 아래 묻었다고 하니, 그것을 바로 정진구에게 받은 공작금의 일부라고 하였다. 그러니 처음부터 안기부의 시나리오를 째어 맞추기 위해 정영씨의 모든 진술이



▲ 아버지가 구속된 1983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상숙씨의 중학교 졸업 사진이다. 오른쪽이 정 영 선생님.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나는 무식해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자식들은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공산주의가 뭘지 어느 쪽이 좋은지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영은 이렇게 강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 타작 뿐이었고 수사관들의 지시대로 하다보니 결국 ‘간첩’이 되고 만 것이다.

하늘이나 알까 땅이나 알까

간첩. 분단된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는 오명으로 일단 이 굴레가 씌어지면 그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강화도에는 전에도 ‘간첩사건’이 종종 있었고, 그러하기에 원시적인 혐오감이 더욱 팽배한 곳이라 ‘간첩’의 가족들이 겪는 경원과 수난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수사관들에게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자청한 것을 보면 40일동안 고립무원의 안기부 밀실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잘 알았고, 절대적인 그 상황에 절망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려 했다. 그가 가족에게 몰래 전달한 탄원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밤낮 구별 없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간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한지 하늘이나 알까 땅이나 알까. 이 세상에 살아서 무엇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죽어 버릴려고 화장실에 가는 도중, 계단으로 도망쳐 옥상에서 죽을려고 뛰어 갔는데 그만 수사관에게 잡혀 버렸습니다.

그후 내가 죽는다고 수갑을 채워 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구둣발로 미구 짓밟아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영은 재판에 한가닥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수사관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니, 법이 진실을 밝혀 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그의 친지들은 오히려 정영을 더욱 명백한 ‘간첩’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혹시 자기도 연루될까 두려워 한 친지들은 수사관들의 요구대로 정영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그의 작은 어머니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 나중에야 “니네들이 했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다.”고 사실을 말했다는데, 그말을 들은 정영의 아내는 속이 터져 입에서 거품이 나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렇게해서 안기부는 국가안보에 혁혁한 공적을 또 하나 남겼다. 일명 강화도 고정 간첩 사건. 그 이후 정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기약 없는 감옥살이가 10년 세월. 그를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김성수 등은 공로표창을 받고 이땅 어딘가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것이다.

유난히도 고정간첩이 찾았던 5공화국 초기를 상기해보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화의 봄을 짓밟으며 정권을 털취한 세력들이 분출하는 민주화의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가장 약한 고리인 간첩사건을 조작해 낸 것은 이제 온세상이 다아는 일이다.

그 암담하고 서슬 푸른 시기에 재대로 된 사건 심리가 있을 수 있으며 고문을 당하고 인권을 짓밟힌들 어디에 가서 호소하겠는가?

이제 정권 안보차원에서 조작된 ‘간첩’들은 모두 빼앗긴 세월을 돌려 받아야 한다. 본인이

쓴 자술서 밖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구나 그 자술서마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써어졌다 면, 당연히 그는 무죄이다.

정영 외에도 납북되었던 사람들 중 13명이 간첩으로 조작되어 형을 살았으며 현재 이상철(17년 선고, 10년 복역), 김정묵(무기선고, 11년 복역), 이재룡(무기선고, 21년 복역)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어머니 보약이라도
지어드리라고
지금 당장 그들
모두가 풀려난다
고 해도 그들이
당한 고초와 가족
들이 겪은 수난의
시간은 그 무엇으
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저번 메이데
이에 결혼할 사
람과 같이 아버
지 한테 갔었어

요. 거기 갔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니까 자주 못가요. 어머니는 몸이 아프신데다 아버지를 보면 속이 상하니까 2-3년에 한번쯤 가세요. 근데 아버지가 10년 넘게 모은 영치금이 백만원 정도 있는데 어머니 보약이라도 지어드리라고 찾아가래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찾아가요? 못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안됐다고 평생 고생만 했다면서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찾아 왔어요. 아버지가 한결 기뻐하시니까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에 상숙씨는 아버지 생각만 하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월착 눈물이 쏟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애쓰는 가운데 훨씬 밝아진 모습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된 듯하다.

“상숙 씨 결혼할때 아버지 손잡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글쎄요.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딱 한번
이라도 아버지가
귀휴를 받더라도
남동생 결혼할때
나오셔야지요.”

딱부러지게 아버
지가 무죄로 석방될
날이 머지 않을 것
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게 이즈음의 현
실이라서 나는 상숙
씨가 그리 큰 기대
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쓰러웠다.

그러나 인권이
부당하게 억눌리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는 지금,
나는 그것에 희망을 건다.

희망은 애초부터 완성품으로 존재한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땀과 눈물에 의해 만들어지고 어느덧 우리네 삶에 커다란 뿌리를 내려가는 것일테니까.

분단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국가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찢겨져버린 한 가족의 상처투성이의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리라.



▲ 온 가족의 '빼앗긴 세월'을 도대체 무엇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숙씨의 지지지 않는 희망 만들기에 우리 모두의 희망을 실어본다.
왼쪽부터 상숙씨, 부인 황문자 씨, 막내 정상태 씨



우리 아이들

임상민 (회원 광인열전)

요즈음 한동안의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한 정신지체특수학교 중등부에 임시교사로 다니고 있는지 보름정도 되었다. 대학때부터 하고 싶었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일이어서 그런지 집에서 먼곳이었지만 임시교사 제의가 들어왔을 때 매우 기뻤다.

나는 나름대로 수업준비를 해가며 내가 맡을 아이들을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제 출근이 시작되었다.

과연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 것인지? 또한 나는, 아이들 앞에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교사로서 위엄을 보일 수 있을는지. 그리고 저희들을 이해할 수 있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보호자로서 인식 될 수 있을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교장선생님의 뒤를 따라 내가 두달간 머물 교실로 향했다. 교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재잘거림은 일순 멎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나에게로 쏟아졌다. 그리곤 다시금 아이들다운 호기심이 교실안을 메웠다. 그렇게 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소개되었고 아이들은 새 선생님을 맞이한 기쁨의 인삿말로 나를 인정해 주었다.

첫째날은 아이들과 나의 이름을 서로 외우는 것과 서로간의 관계형성에 힘을 쏟았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알기위해 각자의 소개를 하였다. 아이들은 다소 떨리는 말소리로, 때로는 어눌한 말소리로(뇌성마비 증상을 갖고있는 아이들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성껏 자신을 소개하였다. 먼저 가르치셨던 선생님처럼 나 역시도 자신들의 발전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눈말을 교사인 나에게 보내면서 우리의 관계 맷음은 이렇게 서로간의 무조건적인 믿음과 기대, 다소의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아이들의 알림장을 통해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인사의 말을 보냈고 아이들은 다음날로 일기장에 새 선생님에 대한 감상을 적어왔다. 그들은 일기장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아이들의 일기를 한자 한자 살피고 맞춤법을 고쳐주며 나의 의견을 적어놓는 것이 나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일기장을 통해 아이들도 나에게 많은 대화를 요구해왔다. 사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잘 쓰리라곤, 또 허투생활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리라곤 생각을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은 표현이 약간 힘들 뿐 보통아이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좋고 나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만의 작위적인 판단과 융통성없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행동의 이면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반 15명의 아이들은 각각의 색깔을 가진 아이들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매일이다시피 좋아하는 여선생님들께 사랑의 편지를 적어오는 자폐증을 가진 갓 사춘기에 접어든 녀석, 쉬는 시간 수업시간 상관없이 자신의 궁금함을 풀기위해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녀석, 내가 수업운영에 빈틈을 보일 때마다 내 자리로 나와 훈계를 하고 들어가는 녀석, 말뚱말뚱 사슴같은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는 녀석, 나에게 이름만 불리워져도 쑥스러운 듯 미소를 보이는 녀석, 자신의 미숙함을 보이기 싫어 나를 설설 피해 다니는 무뚝뚝한, 뇌성마비를 가진 녀석, 아침 일찍 등교해 나의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는, 뇌막염을 앓아 편마비증상을 보이는 녀석, 공부는 잘하진 못해도 친구 도와주는 것 만큼은 제일 잘하는 말썽꾸러기 녀석, 나를 대신해서 친근함과 잔잔한 통솔력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다운증을 가진 우리반 반장. 각각의 색깔로 아름답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회에 바라고픈 것은 단순하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와는 다른 이상한 아이, 도움만이 필요한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들보다 조금 더 불편을 겪고 있는 아이들로 보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갓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무수한 노력을 하듯이 사회의 많은 비장애인들도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사회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직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손을 머리에 올려 칭찬해 주기보다는 혼내주기 위해 손이 머리위로 올라가는 횟수가 더 많은 미숙한 교사이지만 그 아이들은 내가 더더욱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선 교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나역시 그들이 사회에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얘들아, 우리 10년 정도후에는 학교라는 곳을 떠나 사회에서 열심히 진실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다시 만나자. 지금도 그렇듯이 그때에도 서로를 신뢰하면서.



저는 조계사에서 농성하다 연행, 구속된 한국통신 노동조합 임금국장 박충범씨의 아내되는 유미숙이라고 합니다. 단 하루도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한국통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통신 문제는 임금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이미 노사간의 합의로 처리된 사항을 회사와 정보통신부가 합의를 번복하고 고소고발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사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여 고소 고발자 64명 전원을 수배상태로 몰아넣고 계속되는 노조의 대화 요구에도 회사와 정부는 대화 거부로 일관해 왔습니다.

현 집행부가 명백한 합법적인 조합원들의 대표이며, 백보 양보하여 고소고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사법적인 판결이 끝나지 않은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신분임에도 정부와 회사는 이를 불법 집행부라 하여 노조지도부를 대화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정부의 이런 밀어붙이기식 노조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월 6일에는 아침 7시 50분에 명동 성당과 조계사에 경찰 병력까지 난입시켜 군사독재 시절때에도 볼 수 없었던 만행을 저지르며 농성간부들을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구속수배자 가족들은 경찰들의 무자비한 행동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술을 먹고 새벽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전보왔다는 거짓말을 하며 들어와 집을 수색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사주며 아빠가 잘 가는 곳을 가자며 몇시간씩 데리고 다니기 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구속되지 않은 가족들은 친척집에 피신해 있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 전복을 외치고 온통 통신대란을 떠들지만 실제로 국가 전복과 통신대란 사태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국민 전부를 위기의식으로 몰아넣어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 보수적인 세력을 모아, 유리하게 선거를 치루려는 의도가 바로 현재의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탄압의 진실인 것입니다. 6월항쟁 정신을 계승한 문민정부라고 자처한 정부가 아직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노사간 자율 교섭이라는 원칙도 완전히 포기한 것은 현 정부의 파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와 정부측의 폭력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지금도 의연히 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준법투쟁을 강화하여 6/8~10일까지 조합원들은 노조 단체복을 입고 근무하며 지부 집행위 이상은 투쟁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정시 출퇴근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조 지도부는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지시하고 6/8~10일까지 대국민 친절서비스운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또 이 기간동안 투쟁을 모아 6월 10일 지역별 집회를 총력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남편들의 이런 의연한 투쟁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또 저희 가족들은 믿습니다.

국민들의 한국통신 투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며, 폭력독재로 되돌아가는 현 정부에 대한 6월 항쟁의 시작인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지난 6월 8일,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한국통신노조 구속자 가족을 대표하여 유미숙(31세)님이 시민들께 호소한 글입니다.

선비정신의 뒷줄을 이어온 단아한 삶

편집부

물이 맑고 좋아 막걸리와 두부와 무공해 콩나물이 잘된다는 경기도 양평.

바글대는 서울을 벗어나 고작 한시간 반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는 양평엔 한가로운 농촌이 평화로이 누워있고 물어물어 찾아가는 길위엔 초여름의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졌다. 택시기사에게 찾는 사람 이름만대도 그 집앞까지 데려다 주는 작은 마을, 경기도 양평 쌍학리.

서울의 번잡함을 뚫고나온 해방감과 장기수 선생님을 뵐 수 있다는 설레이는 기대감으로 찾아간 쌍학리에서 우린 아직도 목소리가 청년처럼 우렁차신 김도한 선생님(82세)을 뵈었다.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기자의 초행길을 걱정하시느라 창문밖만 내다 보시던 선생님은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핀잔부터 주신다.

“아,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여주역에 도착해 전화를 좀 주시지 않고… 혹 길을 못찾아 늦나하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느라 점심때를 놓치신 선생님과 함께한 점심상 위에는 입에 착착 감기는 막걸리가 반주로 올랐다. 술이 적당히 오를 즈음 결코 짙지 않은 선생님의 여든 삶이 구비구비 풀어지기 시작했다.

삶의 전환점이 된 광주학생사건

김도한 선생님은 1915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서 나셨다. 병자호란 당시 ‘척화파’로 남아 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로 시작되는 연군가를 부르며 심양으로 끌려간 충

신 김상현의 12대 손인 선생님은 세도가 당당하던 안동김씨의 자손.

구한말 영의정을 지내며 외국군의 원조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지키려던 증조부, 을사보호조 약이 체결되자 횃술만 자사다 단식사한 조부, 일제가 들어서자 벼슬을 버리고 지조를 지키던 부친. 목숨을 걸고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쪽같은 사대부의 선비정신을 배우며 선생님은 어린시절을 지내셨다.

선생님이 서울 교동공민보통학교를 나와 제일 고보에 입학한 것은 광주학생 사건이 일어난 1928년. “광주학생 사건은 내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됐어요. 데모를 나갔다 총칼로 시위군중을 내모는 왜군에 쫓겨 들어오며 그때 ‘아, 나는 조선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했어요. 그 이후로 행동양식이 달라지고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게 됐는데, 그게 광주학생 사건이 내 인생에 준 선물입니다.”

민족적 자각을 하게된 선생님은 그 후 비밀독서회에 가입해 반일 반제 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독서회가 발각되어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신다.

“그때부터 종로경찰서 단골이 됐지. 광주학생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막연한 민족적 각성이 일본경찰들한테 직접 맞고 나니까 정치적 반일 감정으로 승화됐어요.”

선생님이 어려서부터 듣고, 보아온 선조들의 지조바른 선비정신이 자연스레 선생님에게도 베어있었던 결과리라.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34년 보성전문학교에 입학은 선생님의 시야가 더욱 넓어지고 세계관이 공고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의 운동은 연극을 통해서였다. 일본 배우, 불란서 배우, 한국 배우 할 것 없이 배우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영화, 연극통’으로 통하던 선생님에게 채플린은 특별한 인물이었다.

“채플린의 ‘황금광 시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광산에 모여든 노동자들의 피폐화 과정을 그린건데, 한겨울 광산에 고립되어 허기에 굶주린 채플린은 구두도 짐승 가죽이라고 생각해 구두를 끊여 먹는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포복절도 하는데 나는 오히려 눈물이 나더라고. ‘희극적 장면을 통해 비극의 최고치를 표현한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플린, 참 훌륭한 배웁니다.”

당구를 잘치는 사람을 끔으라면 ‘보전의 김도한’이라 끔힐 정도로 당구와 연극과 술을 좋아하던 선생님은 졸업후 경성부청 세무과 관리로 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신다.

“그때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양반출신이므로 좌익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직까진 유치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까? 진보적 사상에 동조하면서도 ‘계급’ 얘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선생님의 두터운 외피는 깨어졌다. 당시 무역통제회사에 다니시던 선생님은 즉시 조선인을 모아 자치위원회를 꾸리고, 선거를 통해 자치위원회장이 되신다.

“해방후 더 이상 계급적 열등의식에 빠질 필

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방전선에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이 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찾아가 땅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는 아직도 선생님의 ‘공산주의자 선언’과 땅문서 요구에 아무소리 없이 순순히 응하시던 아버님의 태도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아마 당신은 이념이 뭔지 잘 모르셔도 흥명희 선생 등 당시 진보지식인들과 교류를 하시며 반제투쟁을 하는 사람에게 심정적 동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은 땅을 팔아 만든 돈으로 민청사업을 벌이셨다. 남대문통에 점방을 차려 놓고 낮에는 무역업을 하시고 밤에는 청년단 등 조직사업을 하셨다.

“해방직후 정말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사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조직을 통해서만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주위 친구들의 강권으로 46년 1월 선생님은 입당하신다.

“신탁운동 당시 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해설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람들 중엔 얘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텔리로서 내가 먼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깨우쳐주는 것처럼 기쁜일이 없습니다.”

단독정부 수립후 선생님은 조직원이었지만 중앙청 외자총국 사무관으로 입직하신다.

“49년 12월입니다. 종로서에서 형사 두명이 나와 ‘증인 좀 서주셔야겠습니다. 오셔서 잠깐

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고 해 따라 갔어요. 그런데 경찰차에 올라 타자마자 따귀를 올려 붙이며 수갑을 척 채웁니다." 11일 동안 하루에 두번이상의 고문이 계속 되었다.

"처음 매에 견딘게 힘이 됐어요. 처음 사경을 헤맬땐 눈 앞에 울고불고 하는 어머니와 애들이 그려져 마음이 약해지고 '이젠 죽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견딘 것이 힘이 되어 그 다음 고문부터는 '아, 이게 고비구나.'하는 감이 왔어요.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았지. 그때 내 몸 다 버린겁니다."

당시 신문에는 '서울 중앙청 프락치 책임자 김도한 체포'라고 대서특필 되었다.

선생님의 전신 신경통과 협심증은 당시 고문의 흔적이다. 한치만 물러서도 탄탄히 보장되는 안락한 삶을 단호히 거부하시며 선생님은 참 선비의 반골정신을 지키신다. 결국 살인적인 고문도 선생님의 꾹 다문 입을 열지 못했고 선생님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신다.

민중으로부터 배우며

선생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이미 서울가는 차는 끊어지고 창밖에는 밤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얘기는 마침 6.25로 넘어가고 있었다.

전쟁당시 선생님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하혈을 계속하고 있으셨지만, 인민군이 서울로 들어오자 선생님은 외자총국으로 돌아가 자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신다.

그리고 후퇴. 선생님은 종로 구역당 유격대에 편대되어 후퇴하신다. 퇴로는 혐난했다. 줄면서 전진하다 '억' 한마디를 남기고 낭떠러지로 떨



▲ 김도한 선생님

어지는 대원도 있었고,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 사지가 찢겨 나간 대원도 수두룩 했다.

선생님은 후퇴를 계속 하던중 선천군에 배치되어 선천군 군당사업에 협조하신다. 이 즈음 선생님의 가족 얘기가 궁금해진다.

"열 아홉에 결혼을 했어요. 형님이 한분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장남이 되어 집에서 계속 결혼강요를 받았지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후퇴하는 바람에 딸 어져 있다 2차 후퇴지인 연백군에서 만났어요."

2차 후퇴시 선생님은 연백군에서 군인민회 수매과 직원으로 일을 하시다 아이들을 만나신다.

"처참한 전쟁이었지만 전재민이나 전쟁고아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애들도 계속 인민위원회의 도움으로 그 전쟁통에서 나를 찾아 온 겁니다. 마누라는 당시 미군이 살포했다고 얘기되는 생화학물질 때문에 재귀열을 앓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각 지역 인민위원회 도움으로 나를 찾아 와 한 가족이 모였죠.”

그후 선생님은 평양시 통계처 농업부장을 지내시고, 대성산목장, 삼신탄광에서도 통계의 일을 맡아 하신다.

“삼신탄광에 있다가 55년 4월 인민경제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사실 공부는 별로 못했습니다. 당시 복구건설 때문에 매일 노력 동원됐거든요. 어떤 과목은 두번 정도 수강한게 전부인 과목도 있어요.”

그러나 인민경제대학 시절 선생님은 소중한 경험을 하신다.

“봄, 가을에 농업협동조합 조직사업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강원도 법동군에 가서 선전사업을 했는데, 처음엔 무상으로 분배된 토지를 또 나라에서 빼앗는가 해 듣는등 마는등 하던 농민들이 계속 해설사업을 하자 서너달 후엔 8, 90%가 전부 협동조합에 가입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민중을 대하며 민중으로부터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단아하게 앓아

인민경제대학 졸업후 선생님은 56년 노동성 통계부장으로 발탁되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57년 7월 남으로 내려와 마곡사에 들어가 총무스님으로 지내시다 60년 4월 체포되신다.

“4·19 덕을 많이 봤습니다. 남파됐다하면 사형되던 때인데, 재판 당시 4·19의 영향으로

무기를 받았으니까요.”

두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열두시가 훨씬 넘어서도 계속 됐다. 장장 열시간을 말씀하시면서도 선생님은 가부좌한 자세를 좀체 흐트리지 않으신다. 다리가 절여 다리를 쥐락펴락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선생님은 그렇게 단아하게 앓아 27년의 징역을 사시고 87년 12월 감옥문을 나오신다.

역사의 부름에 한번도 비껴서 본 적 없는 김도한 선생님의 고집은 아직도 여전하시다.

“이 동네 와 보니까 한겨레 신문 지국이 없어요. 그래 양평에 전화했지. 그랬더니 특별히 양평에서 여기까지 배달해 줍니다.”

“선생님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만 힘들게 됐네요. 뭐.”하고 농담을 하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보전을 졸업한후 친구이며 동지인 동창들과 어울려 ‘휴일에 서울 있지 않기 운동’을 벌인 덕에 경기도 근교의 산을 안 밟아본 산이 없고 금강산도 세번이나 다녀 오셨다는 김도한 선생님.

다음날 오후가 되서야 집을 나서는 대도 선생님은 서운하신지 말끝을 흐리신다.

“어, 나 금강산 갔다온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 댁 바로 옆 술도가에서 물 좋은 양평의 막걸리를 한통 사들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으며 차창밖으로 보이는 선생님 댁을 향해 소리쳤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통일되면 양평 막걸리 사서 우리 금강산으로 소풍가요. 선생님, 통일의 그날까지 꼭 건강하세요.”

전날밤 마신 막걸리의 주홍이 그제야 울컥 눈물로 올라왔다.



보내주신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이곳에도 찾아오지만 봄 기운을 느끼지 못하여 아직 겨울내의를 입고 생활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다고 하지만 15척 담장안은 늘 봄 가을이 없는, 겨울과 여름만 느끼는 두계절의 생활을 하고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춥다 덥다하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따뜻하다 신선하다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봄은 봄인데 봄을 느끼지 못하는 추운 겨울에서 무더운 여름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다보니 사람들은 극단에서 극으로 변하는 급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이곳 신문에 미국 앨라배마주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족쇄 채우고 노역시키는 사진이 보도되었는데 저는 놀라움과 착찹한 심정이었습니다. 60년대 이곳에서도 소위 사회참관 시킨다고 하면서 수정차고 포승에 둑어 공장 구경을 돌아 다니게 했는데 이것은 사회참관보다는 사회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만들어주는 꼴이었습니다.

인격모욕을 당하던 참담한 심정이 되살아나게 하는 보도사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세계 최강국에 이른바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미국에서 이런 인권유린이 벌어지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족쇄노역과 같은 체험을 한 저는 법집행의 엄함을 여론에 공개함으로써 범죄심리를 억제시키는 효과까지 얻는다 할지라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로마노예시대에 살아야 합은 인간 존엄성이 상하는 저사라고 생각됩니다.

감옥이란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간 존엄성까지 유린한다면 이것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고문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땅 신문들이 이런 뉴스를 왜 크게 보도하는지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땅에서도 범죄행위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족쇄노역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면 제발 미국으로부터 그런것을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악에는 악으로 대처하겠다는 법논리는 더 무서운 범죄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최근 재미교포 산악인들이 백두산 등산하는 신문칼라 보도사진 모습은 50년대 대학 여름방학 때 백두산 등산도로를 건설하는 봉사노동에 참가하고 처음으로 백두산에 올랐던 감격을 되살리게 했습니다. 백두산 등산 방법도 역사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왔음을 생각하면서 민족의 성산을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712년 청나라와의 국경선 확정을 위하여 당시 양반관리들은 무산에서부터 가마타고 백두산에 올라가 정계비를 세웠는데 38년전 저희 세대는 길없는 산을 걸어서 올라갔고 지금은 눈쌓인 길을 끊매 자동차 타고 올라간다니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 가마타고 등산한 사람이나 지금 자동차 타고 올라가는 사람 다 등산이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만 들리기만 합니다. 그래도 민족성산에 오른 그들의 감격에 박수보내고 싶습니다. 한사람 두사람 백두산 오르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통일의 길도 더 넓어지고 단단하게 다져지리라 믿어 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995. 5. 광주목

- 김동기 님은 1932년 10월 19일 함북 성진시에서 나셨고, 평양상업대학을 졸업. 1966년 체포, 무기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복역중이다. 가족은 모두 북에 있어 무의탁자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5. 1 - 세계노동절 105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준비위원회등이 “민주노총원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서울대 운동장에서 가진 다음, 약2만여명이 보라매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5. 2 - 한청협 부의장 한충목씨의 석방 환영모임이 종로성당에서 있었습니다.
- 민가협 회원들이 법무부를 방문하여 영등포교도소 철망문제, 구매품 제한에 관련된 문제, 석탄절 사면등에 대해 담당 직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5. 3 - 김세진 열사 묘소참배 및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 천세웅 열사 추모식이 성남에서 있었습니다.
-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중 재소자 폭행으로 사망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80%(1억 5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5. 4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연합과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제로 한 목요집회는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성운웅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된 문국진(연세대 철학과 졸)씨에게 국가가 1억 3천 9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5. 8 - 5·18광주민주항쟁 15주년을 맞아 민가협 등 재야단체와 국회의원 등은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5. 10 - 장가협이 연세대에서 장터를 했습니다.
5. 11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전해투, 사노맹 사건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하신 전경희, 김동관, 김정호씨가 함께 했습니다.
- 대구 북부 경찰서와 경북 경산경찰서, 새벽3시 경북대와 영남대에 세워진 인혁당 관련 ‘4·9 통일 열사 추모비’를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5. 12 -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비 지로 납부 문제, 5월사업 · 재정보고가 있었습니다.
- 불교 인권위 제5회 인권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가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 서울 지하철 노조 하루주막에 다녀왔습니다.
-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이 공장 해고노동자 양봉수 (28세, 의장2부 노조 대의원)씨가 공동소위 2기 발대식에 참가하려다 회사측의 제지와 구타에 항의해 분신을 해서 현재 중태입니다.
5. 13 -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주최로 장충단 공원에서 “5·18 학살 책임자 기소 촉구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5. 15 - 조성만 열사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5. 16 - 구학협 어머니들이 서울대 대동제 기간에 장터를 하셨습니다. (5/16-5/19)
- 광주시는 광주시립묘지 제3묘역 (5. 18묘역)에 있는 윤기남 선생님의 무덤을 가족과도 상의없이 불법으로 파헤쳐 8묘역으로 옮기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윤기남 선생님 무덤은 광주시로부터 사용료와 수수료 315,000원을 내고 3묘역 354묘지 사용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월 26일 구속된 한국외국어대 박창희 교수는 아무런 증거제시도 없이 자신을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발표한 동아일보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차로 정정보도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5. 17 - 출소장기수 선생님들 종합검진 의뢰서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 발송했습니다.
- 서울지법 형사 항소5부 (김영기 부장 판사), 컴퓨터 통신에 ‘공산당 선언문’을 실은 사건에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5. 18 - 5·18 1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처벌 진상규명 요구가 온 나라를 울렸습니다.

- 낙성대 만남의집 차고를 나래건설에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월 25만원)
- 5. 19**
-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 정진상 교수는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 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민중탕제원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 교도소에 '밀' 지를 발송했습니다.
- 5. 20**
- 인천 중부경찰서, '굴업도 해폐기장 철회를 위한 제3차 궐기대회'를 마치고 평화행진을 하던 덕적도 주민과 대학생 1천5백여명에게 곤봉과 최루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134명이 강제연행되었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 부산지검 울산지청과 경남 경찰청, 해고노동자 문신관련 농성중인 울산 현대 자동차에 경찰력 침투 시켜 분신대책위 공동의장 이상범, 이현구, 윤성근 씨 등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332명을 강제연행했습니다.
- 5. 21**
- 후원회 5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모두 29명이 함께 했고, 관악산에 다녀왔습니다.
 - 남대문 경찰서는 참배울일꾼청년회, 샘 등 4개 청소년 단체가 광주기행을 위해 예약해 두었던 버스를 협박하여 강제로 되돌려보내고 고등학생들의 광주기행을 가로막았습니다.
- 5. 22**
- 후원회 회비 관련 지로를 신청했습니다.
- 5. 23**
- 범민련 주최, 신정길, 한충목, 김재용, 이종욱 씨 석방 환영 모임이 있었습니다.
 - 서울 경찰청, 한국통신노조 사무처장 김재연씨를 구속하고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수배중인 장영길 위원장 등 3명을 강제연행했습니다.
 -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회원 100여명, 미8군 사령부 입구에서 한미행정협정 개정, 미군 범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하였습니다.
- 5. 24**
- 민가협 회원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국통신 노조 대표들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 5. 25**
- 민가협 81회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노래패 "노래이야기"가 함께 해주셨고 박창희 교수 아드님과 성대 민민학련과 고대생 구속자 가족들이 나와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 김귀정 열사 4주기 추모모임 및 추모 거리행진이 있었습니다.
 - 서울지검 공안2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안호상 대종교 총전교와 김선적 총무원장에 모두 3년씩 구형했습니다.
 - 서울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장우 판사)는 희망새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가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94년 4월 17일자)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5. 27**
-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중인 윤민석(윤정환) 씨 석방을 위한 '윤민석 음악제'가 한양대에서 있었습니다.
 - 장기수 111명에게 영치금을 발송했습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로부터 출소장기수 종합검진사업을 적극 돋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5. 29**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반공법 등으로 복역한 일이 있는 박정숙(78), 김순분(70) 두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도청장치를 한 도청자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5. 30**
-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5. 31**
- 출소장기수 선생님들께 생활지원금을 전해 드렸습니다.
 - 미국 수도장로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서경원, 김태룡 자녀에게 각각 10만원씩 전해 드렸습니다.

5월에 구속된 양심수

6월 27일 자체 선거를 앞둔 5월에도 공안정국을 연상케하듯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 구국자주대오 사건, 부산지역의 빛나는 전망 사건, 고려대 반미불쾌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전해투, 한국통신 등 과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노조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3차개입 등을 적용하여 무리한 인신구속이 계속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구속자들이 선거를 앞둔 근거없는 조작사건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고 노동관련 구속자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탄압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실체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법적용에 대한 시비또한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가협에서 파악한 5월에 구속된 양심수 현황입니다. 민간단체로서 명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구속자는 민가협이 파악한 수치보다 훨씬 웃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고려대 반미불쾌 사건 - 5월 15일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산악회 반미불쾌라는 주사파 조직을 만들어 학내에 북한, 통일관련 자료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열린 최홍재씨 등 4명의 구속적부심에서 최씨는 자신은 산악회를 만든적도 없고 경찰의 조작임을 주장했고 수사또한 조직적 관련보다 개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고대 총학생회장이 올해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한총련 탄압과 연결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홍재(91년 총학생회장) 박선경(졸업, 임용고시 준비) 강현우(졸업, 법학 90) 윤성문(군인, 법학 90) 이동현(군인, 법학 91) 오백근(군인 체교 92) 김정일(군인)

■ 부산지역 <빛나는 전망> 사건 - 5월 15일

부산시경은 부산지역 대학생 17명(현역군인 5명 포함)을 긴급구속한 뒤 <빛나는 전망>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맑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 유포한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고 밝혔으나 이들중 7명은 불구속으로 석방하여 구체적인 사실수사없이 인신을 구속했음을 보여주었다.

김명록(군인, 부산대) 임은기(군인, 부산대) 이일우(군인, 부산대) 장경국(군인, 부산대) 남기래(군인, 동아대) 이은영(동아대 91) 한수환(동아대 92) 이승정(동아대 91) 안현아(부산여대 93) 이상미(부산여전 졸업)

김기호(군인, 부산대) 정윤빈(건국대) 최제현(연세대) - 5월 15일

■ 성균관대 민민학련 사건 - 5월 16일

학생들에 따르면 민민학련은 완전 공개된 학생 써클이었으며 92년말 써클 간부들이 수사를 받고 곧 풀려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가족들은 그당시 종결된 수사내용을 3년이 지난 지금, 비합법조직과 연계 운운하며 현행범도 아닌 현역 군인들을 연행한것은 공안정국 조성의도가 아닌 가하는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수일(군인, 민민학련 성대지부 2기 의장) 이경돈(군인 성대 89) 추경민(군인, 성대 89) 유영민(군인, 성대 87)

■ 원광대학교 구국자주대오 사건

93년도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여학생회, 단대 학생회 간부들이 10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구국자주대오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북한을 고무, 친양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하였다고 밝혔으나 학생들은 현재 연행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업하거나 군복무 중인 사람들이며 또한

알립니다

1~2년전 합법적인 총학생회 간부나 과학생회 활동을 문제삼아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구속시키는 것은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연(93년 총학 학술부장) 배영석(군인, 93년 총학 투쟁국장) 황충연(군인, 93년 농대학생회장) 이정호(법학과) 이정훈(93년 총여학생회장) 박정훈(군인, 91년 총학생회장) 등

김기현(제2기 한총련 조통위원장, 중앙대 총학생회장)

이용덕(성대 총학 부회장)

■ 전남대 민사련(민족사랑학생연합) 사건 - 5월 30일

민사련은 93년 9월 전문성이 비슷한 5개의 학술동아리가 연합조직으로 만든 동아리연합 모임인데, 경찰은 95년 5월에 와서 이적표현물 작성, 이적단체 결성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

추병주(1기 의장) 남종호(동아리 회원) 강성일(준비위원장) 한문석(군인) 김동오(군인)

집시, 폭력 등 기타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인천 지역 대학생들과 대책위 주민들이 폭력,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로 구속되었다.

■ 인천시장실 점거 - 5월 17일

김현호 조종필 박경수 임현준 박용우(이상 인천대)
김현기 정준용 이경훈 김동우(이상 인하대)

■ 핵폐기장 반대 집회 - 5월 22일

김기현 이상대 선철규 임태홍(이상 인천대)

■ 굴업도 대책위 - 5월 14, 17일

송원호 허성규(사무장) 김창준 김인신

■ 기타

박신선 노동환(성균관대) 김성희(홍익대)

노동관련

■ 한국통신노조

오용철(교육국장) 김성웅(산업안전국장) 김용광(조직3국장) 김종석(서청주지부장) 유상학(보도국장) 박철건(조직1국장) - 업무방해, 폭력

■ 전해투

장영길(대표, 서울지하철 해고노동자) 허태구((주) 풍산 해고자) 이동렬(L.G전선 해고자) - 공무집행방해

■ 현대중공업

서영택(조합원) - 집시법.
김석문(대의원) - 업방, 폭력

■ 현대자동차

이상범 윤성근 이현구(분신대책위 공동대표) 이덕기 김화식 김기남 최용탁 문용문 손태현 이상용 이진윤 김광식 박상춘 - 업무방해

■ 민주노총 준비위 집행위원

이상현 - 3자개입

■ 서노협 쟁의부장

민동원 - 3자개입, 집시

■ 민주노총 부천시흥 준비위

이재윤(위원장) 박양희(사무처장) 박상수(동양에레베이트 위원장) - 3자개입, 폭력

■ 전노운협 의장

김영곤 - 3자개입

종합검진을 받으십시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출소하신 장기복역 양심수 여러분의 종합검진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고마운 협조를 얻어 93년에 이어 두번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이미 대상자 여러분께도 연락해 드렸습니다만 연고가 없으시거나 15년 이상 복역하고 60세 이상되신 분 중에 혹시 이웃에 빠지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출소한 장기복역양심수

2. 연제 : 1995. 6. 1 ~ 11. 30(본인이 원하시는 때)

3. 검진항목 : 위내시경, 간검사, 혈압, 당뇨, 폐, 각 기관 초음파검사, 기타

4. 준비할 일 : 검사받기 전날 밤 10시 이후에는 어떤 음식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5. 검진할 곳

가. 김지영 내과의원(원장 김지영)

마포구 노고산동 40-48 (전화 : 717-5665)

신촌 전철역에서 이대쪽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70m 정도 거리

나. 사당의원(원장 김종구)

동작구 사당 2동 148-10 (전화 : 532-0731, 599-5212)

4호선 총신대 역에서 총신대 쪽으로 150m 거리

다. 성동주민의원(원장 윤여운)

광진구 노유 1동 9-31번지 (전화 : 498-4353)

건대 전철역에서 조양시장 쪽으로 내려와 150m 거리, 나래이동통신, 아남내서널 옆
골목 지나 카운트타운 2층(병원 실무책임 이현주씨를 찾으십시오)

- * 검진결과에 따라 특수검사(CT촬영 등)나 계속 진료를 요하는 분은 양심수후원회에서 뒤처리를 하겠습니다.
- * 지정된 병원이 거리나 시간상으로 어려우시면 받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진받으실
지 여부와 선택병원을 후원회에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병원에 가시기 전 병원 쪽에 전화를 하여 위치확인을 하십시오.
- * 의료보험증이 있으신 분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 토요일과 일요일은 병원 사정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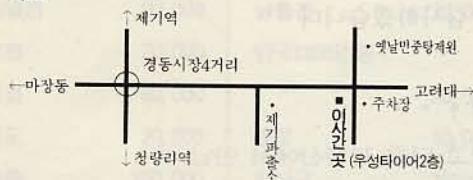
● 최남규 선생님께서 사당의원에서 퇴원을 하셔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당의원에서 간병을 도맡아 해주신 엄주현 회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밤시간을 내어 선생님을 돌보아 주셨던 회원 여러분들 서울지역 청년단체협의회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 민중당제원이 새롭게 이사를 했습니다.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1동 797-2호 2층

전화 : 969-8726

약도



● 황용갑 선생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주소 : 영등포구 대림2동 704-10호

전화 : 831-4941

● 이대 87 간호사 모임의 선난숙 회원이 지난 5 월 27일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합니다.

● 김영옥 전 운영위원 아드님인 김상천 씨가 나라사랑청년회 김지현 씨와 5월 28일 수운회관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합니다.

● 민가협 운영위원이신 임기란(박신철 어머니, 전 구학협 회장)님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에 책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진만, 오정화 회원의 따님 최해솔 양의 첫돌이 6월 4일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 6.27 지방자치단체선거에 강정구 회원께서 도봉 병구 창5동 구의회 의원으로, 조동문 회원께서 노원을구 상계10동 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빌겠습니다.

● 여혜정 회원께서 대단한 집념으로 편집 디자인 학교를 다니시던 중 5월 31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편집 디자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터를 제공하실 분이나 소개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 여성문화 예술기획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안혜경 님과 언니 안일순 님께서 70-80년대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한 지식인 여성의 자아성찰과 삶의 재발견에 대한 자기고백적 노래 모음 2집과,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삶을 그린 '뺏빨'을 함께 출판기념을 6월 7일 가졌습니다. 축하합니다.

● 큐빅 테크 대표로 있는 김종삼 회원께서 새로 도서출판 '당대'를 차려 송두율 사상집 "역사는 끝났는가"를 펴냈습니다. 독일 훈볼트대학 철학교수로 있는 송두율 씨 글은 이미 나라안 여러 출판물에 많이 소개된 바 있지만 이 책은 급변하는 세계사에서 사상방향을 하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 5월 우리후원회의 새식구가 된 분들 중 동덕여대 여러분들이 27분이나 됩니다. 손을 들어 크게 환영하며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볼까요.

김문형(노원구 중계동) 문자람(은평구 역촌1동) 허영애(동덕여대) 심혜정(강서구 화곡본동) 송지연(영등포구 문래동) 남경미(강남구 역삼2동) 오은주(송파구 잠실본동) 전인숙(영등포구 신림5동) 남윤희(서대문구 홍제3동) 박정훈(종로구 창신2동) 최영(강남구 대치동) 남궁연진(도봉구 쌍문2동) 민영경(동작구 사당동) 박소영(성동구 광장동) 박신영(성남시 분당동) 이성육(노원구 하계동) 최영규(성북구 석관2동) 한경희(도봉구 쌍문2동) 김순경(종로구 연건동) 김인섭(도봉구 창3동) 오선희(동대문구 용두2동) 박추희(성북구 강위3동) 이소정(노원구 월계2동) 이정온(성북구 길동1동) 이혜림(서대문구 북아현1동) 한소희(강북구 수유2동) 김선미(양천구 목4동) 김은수(관악구 봉천4동) 박명숙(금천구 시흥4동) 양계숙(성동구 성수1가 2동) 이유정(도봉구 방학동) 조윤하(한양대학교 안산배움터) 박철완(인천시 남구 문화동) 김선희(구로구 구로6동)

회비내는 일이 편리해졌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7차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문의해온 회비의 '지로' 제에 대해 토의를 한 끝에 원하는 회원의 편의를 돋고 또하시는 일로 미루어두었던 회비내는 일에 도움이 될듯하여 다음달부터 '지로' 용지를 보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 해오신 방법인 국민, 제일, 농협, 신탁은행에서 후원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여전히 통용됩니다.

또한 '자동이체'를 원하는 회원께서는 우리 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인 국민, 농협, 제일, 신탁은행과 같은 은행의 온라인 구좌번호와 본인의 통장,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 회원께서 약속하신 금액과 자동이체일을 신청하시면 한달 후부터 실행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한번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매달 번거롭게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회비를 내주신 회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틈에 회비내는 일을 미루어 오셨던 회원들께서도 양심수의 고통을 나누고 석방을 앞당기는데 큰 밑받침이 된다는 자긍심으로 회원 여러분의 조건과 능력에 맞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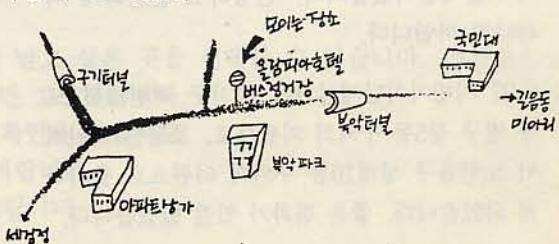
••• 6월산행 •••

푸른산 맑은 공기, 우리들 몸과 마음 같고 닦을 북한산에서 만납시다.



◀ 지난 5월 21일, 모두 29명이 함께하여 낙성대-역-낙성대-능선-연주대-연주암-파천에 이르는 산행을 하고 파천 한자원 선생님의 안내로 보리밥집에 들려 금재성 선생님을 찾아뵙고 재미난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 언제 1995년 6월 18일 오전 10시
- 어디로 북한산(일선사~구기터널)
- 준비물 회비 3,000원 맛있는 도시락
- 모이는곳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 맞은편(북악파크 앞)
- 버스노선 135, 135-1, 8, 522 (종점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150m)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국민의 땀과 힘에 의해

이땅에도 군사독재가 끝장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져버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800명이 넘는 양심수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감옥안에는 5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수 중에는 적게는 10년, 심지어는

44년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6명이나 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뒹지않고 햇빛 한점 자유롭게 맛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께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 결연을 추진합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탁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